

 <b>인천광역시</b>	<b>보 도 자 료</b>		<b>재외동포청 최적지</b> <b>인천</b> <b>뿐입니다</b>
	배포일자	2023년 3월 24일(금) 총 2매	
담당 부서	물류정책과	담당자	• 해양항공물류팀장 이양숙 ☎440-3841 • 담당자 김성호 ☎440-3843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인천시, 인천지역 항만 경쟁력 강화위해 인센티브 12억 지원**  
**- 인천지역 항만 이용하는 선사, 화주, 포워더 대상 -**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항과 경인항의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선사·화주·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인천지역 항만활성화 인센티브 1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인천항과 경인항의 신규항로 개설, 물동량 증대 및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등을 위해 인천항만공사(IPA)에 10억 원, 한국수자원공사(K-water)에 2억 원을 배분해 인천항과 경인항 이용사들을 지원한다.

▲인천항의 인센티브는 선사와 화주·포워더로 나뉘며, 선사는 신규·원양항로, 물동량 증가, 환적을 기준으로, 화주·포워더는 전략지역, 냉동·냉장, 수출증가, 복합운송, 인천시 포워더 여부 등에 따라 지원한다. 인센티브 신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.

▲경인항의 인센티브는 물동량 증가, 항로개설, 항비지원(예선·도선료)에 따라 지원하며,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하는 부두 운영사(SM경

인터미날, 인터지스, 대우로지스틱스)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. 인센티브 신청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신청하면 된다.

인천항과 경인항 인센티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센티브 산정근거 및 지급기준 심의, 타당성 등 심도있는 실적 검토를 통해 지급한다.

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다양한 국제정세 및 이슈의 변동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, 화주 및 포워더에게 물류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, 타 항만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인천항 기항 선사 증가 및 서비스 확대로 신규 화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, 해운물류업계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인천지역 항만 이용자들의 의욕 고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며, “꾸준한 지원으로 인천지역 항만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